

2014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및 유치전략

2004. 8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I. 서 론	1
II. 동계올림픽의 유치 의의와 필요성	3
1. 동계올림픽의 개요	3
2. 동계올림픽 유치의 필요성	5
3. 동계올림픽 유치 당위성	6
4. 동계올림픽 개최의 기대효과	8
5.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9
III.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여건 분석	11
1.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경험	11
2. 경기시설	12
3. 숙박시설	17
4. 도로 및 교통	18
IV.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
1. 경제효과 분석도구	22
2. 투자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24
3.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28
4. OCOG의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37

5.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47
6.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51
7.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인근지역 파급효과	53
V.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56
1. 동계올림픽 개최의 긍정적 측면	56
2. 동계올림픽 개최의 부정적 측면	57
3.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	58
3.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예산집행	59
3.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61
VI. 2014 동계올림픽 유치전략	63
1.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절차	63
2. 2014 동계올림픽 유치전략	64
3. 2014 동계올림픽 유치시 고려사항	69
참고문헌	73

표 목 차

<표 1> 2014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4
<표 2>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경험	7
<표 3> 경기시설 활용계획	8
<표 4> 경기시설확보계획	14
<표 5> 숙박시설 현황 및 계획	17
<표 6> 도로 및 고속도로·철도 현황과 확충계획	18
<표 7> 올림픽 효과의 단계	21
<표 8> 전국투입계수와 전북 지역기술계수의 격차 비교	24
<표 9> 올림픽경기장 확충계획과 자원조달	25
<표 10> 투자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27
<표 11> 전라북도 관광객의 추이	29
<표 12> 전주시 관광객 현황	27
<표 13>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지출구분 산정	32
<표 14> 일본 나가노 올림픽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33
<표 15> 올림픽 기간 관광객의 평균지출액과 체류기간	33
<표 16> 2014년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예상지출액	35
<표 17>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36
<표 18> 시드니 올림픽 마케팅 수입	38
<표 19> 세계 주요국의 시청자 수	39
<표 20> 대륙별 동계올림픽 방송시간	40

<표 21> TOP 프로그램 수입의 변화	42
<표 22> 시드니 올림픽 TOP 프로그램 참여기업	43
<표 23> 올림픽 입장권 판매 실적	44
<표 24> 종목별 예상 입장권 판매량	44
<표 25> 2014 동계올림픽 입장권의 예상가격	45
<표 26> 사업수입 총액	46
<표 27> 대회운영비 지출내역	47
<표 28> OCOG의 소비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48
<표 29> 산업별 총유발효과	49
<표 30>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의 유발효과	50
<표 31>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타지역(충남·경남) 파급효과	55
<표 32> 소요재원	57
<표 33> OCOG의 추정 현금흐름표	59
<표 34> 1990년대 올림픽대회의 개최 재산성	59
<표 35> 추정 손익계산	33

그림 목 차

<그림 1> 외국인 관광객의 형태별 지출	34
<그림 2> 올림픽 마케팅 수입(2001-2004)	38
<그림 3> 동계올림픽 방영권 수입	41
<그림 4> 방영권료의 구성추세	41

I. 서론

전라북도는 국민화합의 장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문화정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호남 및 중부권의 접적지인 전주와 무주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주는 국제 동계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관광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전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전주와 무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2014 동계올림픽은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 유치과정에서 겪었던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는 달리 유리한 대회유치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대륙간 개최지 순환방침」에 따라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2010년 캐나다 밴쿠버가 개최지역으로 이미 선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2014년은 아시아권에서 개최될 차례이다. 일본이 1972년과 1998년 2회에 걸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고, 중국이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개최국가로서 유치 전망이 매우 밝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화해와 평화를 기약하는 남북간 협력이 모색되는 시점이어서 전세계 인류의 평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2014 동계올림픽의 우리 나라 유치 전망은 매우 밝다.

이러한 여건 하에 2014 동계올림픽이 전라북도에서 개최된다면 그 어느 대회보다도 알차고 실속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지난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임 확보된 국제규모의 경기시설과 경기진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2014 동계올림픽의 전북 유치는 경기시설 신설 등에 최소한의 투자로 흑자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전주와 무주에서의 2014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준비과정에서 생산, 소득, 고용유발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지역상품

브랜드의 국제화, 스포츠 문화교류의 확대 및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간접적인 효과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본 연구는 2014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 파급 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동계올림픽을 전북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4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자원조달방안, 경기장 및 숙박시설 확보·교통대책 등의 유치여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자료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분석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해 실증 분석하였다.

II. 동계올림픽 유치의 의의와 필요성

1. 동계올림픽의 개요

동계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이 지향하는 이상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긍정에 바탕을 둔 낙관주의, 그리고 인류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신념체계에서 나온 목적 지향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국제적 대규모 동계스포츠 행사 중의 하나이다. 동계올림픽의 주최 및 집행은 IOC에서 직접 수행한다. IOC의 회원국 수는 199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에는 통상 80여개국 3,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대회에 참가하여 그 기량을 발휘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동계스포츠 대회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은 스포츠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계 지구촌 스포츠 대제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계 유니버시아드 및 월드컵대회 보다 한 단계 위인 국가의 자긍심 및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9회가 개최되었고, 최근의 대회인 제19회 동계올림픽(2002)은 미국의 솔트레이크에서 개최되었으며, 2006년은 이탈리아 토리노, 2010년은 캐나다의 밴쿠버로 확정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나가노(NAGANO)에서 1998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참가규모는 72개국 3,500여명이 참가하였고, 경기종목은 7경기 68종목이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2002년 2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참가규모는 77개국 2,500여명이었고, 경기종목은 7경기 78종목으로 나가노 올림픽에 비하여 참가국 및 경기종목이 늘어났다.

2014 동계올림픽을 전북에서 유치할 경우 사상 최대규모인 80여개국 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16일 동안의 대회기간 중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경기 15종목 78세부종목이 펼쳐질 계획이다<표 1>.

<표 1> 2014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경기(7)	종목(15)	세부종목
스키(36)	알파인(10)	남 : 활강, 회전, 대회전, 초대회전, 복합 여 : 활강, 회전, 대회전, 초대회전, 복합
	크로스컨트리(12)	남 : 1,500m, 10,000m, 15,000m, 30,000m, 50,000m, 4×10km 여 : 1,500m, 5,000m, 10,000m, 15,000m, 30,000m, 4×10km
	점프(3)	K90, K120, K120(단체)
	복합(3)	K90+15km, K120+7.5km, K90+5km(R),
	프리스타일(4)	남 : 모글, 에어리얼 여 : 모글, 에어리얼
	스노우보드(4)	남 : 대회전, 하이파이프 여 : 대회전, 하이파이프
빙상(22)	스피드(10)	남 : 500m, 1,000m, 1,500m, 5,000m, 10,000m 여 :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피겨(4)	남, 여, Pairs, Dancing
	쇼트트랙(8)	남 : 500m, 1,000m, 1,500m, 5,000m(R) 여 : 500m, 1,000m, 1,500m, 3,000m(R)
바이애슬론(8)	바이애슬론(8)	남 : 10,000m, 12,500m, 20,000m, 4×7.5km(R) 여 : 7,500m, 10,000m, 15,000m, 4×7.5km(R)
봅슬레이(5)	봅슬레이(3)	남 : 2인승, 4인승 여 : 2인승
	스켈레톤(2)	남, 여
루지(3)	루지(3)	남 : 1인승, 2인승 여 : 1인승
아이스하키(2)	아이스하키(2)	남, 여
컬링(2)	컬링(2)	남, 여

2. 동계올림픽 유치의 필요성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전북의 전주와 무주는 국내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지역발전이 극히 부진하였으나, 전주는 풍부한 문화예술의 보유와 많은 고등교육 인구, 2002년 월드컵 경기의 개최로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주는 국내 최고의 청정 관광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입지여건에 맞는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동계올림픽은 어떤 정치적 이유나, 인종, 종교,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대회 규모 면에서는 하계올림픽에 미치지 못하지만 IOC 회원국의 약 35-40%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큰 대회이다.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개최국가 및 개최지역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동계스포츠 자체가 지구의 북반구에 자리잡은 대부분 선진국가의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동계스포츠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 및 지역에서 즐기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선진국 수준의 경기시설, 운영 및 깨끗한 자연 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선진국 대부분의 인정에 의하여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주와 무주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개최하게 된다면, 세계인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를 심게 되어 양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를 한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올림픽 개최의 다양한 효과를 갖는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유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의 민심을 일치시키고, 주민들의 자부심 배양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둘째, 소비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건전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로서 역할이 필요하며, 셋째, 21세기를 향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생활환경시설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관련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관련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북지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지역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계올림픽 유치 당위성

가. IOC가 지향하는 환경올림픽의 최적지

설상경기를 개최하는 무주는 청정한 산세와 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환경생태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설상경기 시설을 거의 대부분 갖춘 무주리조트는 새로운 경기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거의 없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활강 슬로프 개발명목으로 정선군 가리왕산 중봉일대에 국내 최장의 활강스키장과 대규모 리조트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곳은 오대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동강 본류까지 5km 거리에 있어, 개발시 중봉지구의 자연환경 훼손과 동강의 수질오염이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강유역 리조트 개발과 관련 환경부장관은 “영월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최대명분인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관련 제도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환경운동단체의 반발을 부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서 IOC 공식시설 기준 충족

무주는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이미 국제경기에 적합한 공인된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주=동계스포츠라는 인식이 들만큼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서 입지를 굳혔다.

무주는 국제대회에서 요구되는 표고차 800m 이상의 활강경기장과 K-120, K-90의스키점프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며, 이들 시설은 국제

규격으로 공인을 받은 상태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IOC 공식 시설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설상 및 빙상경기장의 추가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습경기장도 무주리조트 인근에 스키연습 슬로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무주에서 40km 거리에 있는 경남 함양군 서상면 지역에 총 스키슬로프 면적 69만3,805㎡, 총 슬로프 길이 1만4,550m, 주차대수 1만1,500대 규모의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이 2014년 완공을 목표 진행되고 있어 남부지역의 동계스포츠 타운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강원도가 추진 중인 가리왕산 중봉지구의 활강경기장은 눈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개발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대관령 지역의 스키시설 등은 평균 표고차가 300-400m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지만 활강, 슈퍼G, 스키점프 대회 등을 치룬 경험이 없다.

다. 교통의 중심지 및 동서화합의 중심지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무주는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계도로 및 기존 6개의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교차하고 있어 서울, 부산 등에서도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또한 군산-함양-포항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동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인구 300만의 대구광역시, 서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를 배후시장으로 삼을 수 있고, 행정수도가 공주-연기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국내 관람객의 유치경쟁력이 매우 높다.

무주는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등 5개도 6개 시,군이 함께 만나는 중심에 있어 우리나라 동서화합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다.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어 인류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아 동계올림픽을 민족대

화합의 자리로 완성할 수 있는 곳이다.

라.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미지 창출과 관광여건 보유

전라북도 전주는 전통적 예향으로 기존 문화행사와 시설만으로도 전북을 찾는 선수임원·기자단·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다.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미지 창출의 최적지로 세계인의 뇌리에 전북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변산국립공원 등 산악관광 및 해양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마. KOC, 강원도, 전북도 간 합의된 “대국민 약속” 이행

2010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2010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유치신청서를 단독 제출하고, 2014 동계올림픽은 IOC의 공식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북도에 우선권을 주기로 한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2010 동계올림픽의 유치 실패는 안타까운 고통이지만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편법으로 전북의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올림픽의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동계올림픽 개최의 기대효과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통한 준비과정과 개최로 인해 파급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촉진
 - 전북 동부산악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

②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 전라북도의 이미지제고 및 지역의 국제홍보 효과
- 경기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투자로 경제활성화
- 국제 수준의 동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중부권 동계스포츠 중심지 부상
- 세계적인 동계 관광명소 조성으로 관광수입 증대

③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 국민의 동계 여가선용 시설 확충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중심의 레저문화 활성화 기여
- 청소년의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 확보

④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격상 및 지역주민이 자긍심 고취

- 국제스포츠를 통한 교류확대로 국제무대에서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의 유치한 여건 조성
- 국제대회 운영경험의 축적과 지역주민 의식의 선진화
- 동·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라는 자긍심 고취

5.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전라북도는 1992년 2월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10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93년 5월 동계올림픽 전북유치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침을 수립하였고, 93년 7월에는 동계올림픽 전라북도유치지원특별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1997년 2월 48개국 1,400여명이 참가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8년 12월 KOC는 전라북도에 정부보증서 발급계획을 통보하였고, 전라북도의회는 동계올림

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5월 「2010 동계올림픽 유치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KOC는 임시위원 총회를 통해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공동유치를 결정하였고, 2002년 5월 전라북도는 2010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C의 2010 강원도 단독유치, 2014년 전북 단독유치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2003년 제15차 IOC 총회에서 제21회 동계올림픽 개최장소를 캐나다의 밴쿠버로 결정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3년 9월 동계올림픽 유치팀을 구성하였고, 2003년 12월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사무국을 발족하였으며,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Ⅲ. 전라북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여건 분석

1.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경험

전라북도에서는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치를 위해 일찍부터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사전 경험을 쌓고, 국제 스포츠계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92년부터 현재까지 동계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6차례 개최하여 대회운영의 노하우를 쌓아왔고, 97년에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버금가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표 2> 동계스포츠 국제대회 개최경험

대회명	기간	참가국 및 선수규모	국제경기단체
세계프로스키챔피언대회	92. 2. 10~14	11개국 75명	국제스키연맹
제1회 무주배 국제알파인스키대회	93. 2. 22~23	15개국 105명	국제스키연맹
제2회 무주배 국제 알파인스키대회	94. 1. 28~30	13개국 98명	국제스키연맹
제3회 무주배 국제 알파인스키대회	95. 2. 15~18	15개국 109명	국제스키연맹
제4회 무주배 국제 알파인스키대회	96. 2. 1~4	10개국 71명	국제스키연맹
제1회 하계스키점프대회	96. 9. 25~26	9개국 85명	국제스키연맹
'97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97. 1. 24~2. 2	48개국 1,406명	FISU
프리스타일우수선수초청대회	97. 2. 14~17	9개국 90명	국제스키연맹
제1회 여자알파인 국제스키대회	97. 2. 22~25	15개국 103명	국제스키연맹
제2회 하계스키점프대회	97. 9. 24~27	11개국 82명	국제스키연맹
제3회 하계스키점프대회	00. 8. 30~31	10개국 72명	국제스키연맹
2001아시아쇼트랙선수권대회	01. 3. 17~18	3개국 33명	아시아빙상연맹
2001세계쇼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01. 3. 30~4. 1	28개국 248명	국제빙상연맹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01. 11. 6~10	5개국 201명	아시아태평양 컬링경기연맹
2002 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02. 1. 21~27	13개국 260명	국제빙상연맹
03/04 ISU 세계 쇼트랙월드컵대회	03. 11. 28~30	21개국 170명	국제빙상연맹
2006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06. 3. 5~16	15개국 300명	세계컬링연맹

또한 지금까지 각종 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도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이와 같은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풍부하여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의 범주는 전문인으로 구성된 기관부터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에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퍼져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동계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해온 전라북도는 2014동계올림픽 개최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북이 2014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전문요원을 중앙/지방의 유관 체육단체에서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경기시설

가. 경기시설 현황분석

2014 동계올림픽은 7경기 15종목 78세부종목을 개최할 계획이다. 전주와 무주에서 이들 종목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모두 17개의 경기장이 필요하다.

대회에 필요한 17개 경기시설 중 8개 경기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경기시설의 활용계획은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경기시설 활용계획

구분	계	확보	보강	신설
		5	1	6
설상종목	12	【97대회시 국제공인시설】 ①스키점프 ②여자활강/슈퍼G ③알파인 회전 ④알파인 대회전 【미 공인시설】 ①스노우보드 대회전	①남자활강/슈퍼G	①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②프리스타일 에어리얼 ③프리스타일 모글 ④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⑤크로스컨트리 ⑥바이애슬론
빙상종목	5	1	1	3
		【미 공인시설】 ①컬링	① 여자 아이스하키	①피겨/쇼트트랙 ②스피드스케이팅 ③남자 아이스하키
계	17	6	2	9

나. 경기시설 확보계획

전북 전주시와 무주군은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위해 건립한 빙상 및 설상경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 중 건립한 축구경기장 등 지역체육시설 보유가 대단히 양호하다.

전주시와 무주군이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경기장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여 개치한다면 흑자대회로 운영이 가능하다.

1) 무주리조트 지구

무주리조트 지구 내의 경기시설은 스키점프장, 남자 및 여자활강경기장, 알파인대회전 및 알파인회전경기장, 스노우보드 대회전경기장 등 6개 경기시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남자활강경기장을 제외한 경기시설은 일부의 경사도만 조정하면 국제스키연맹의 공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으며, 남자 활강경기장의 경우 표고차 및 길이를 보완하게 되면 국제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들 경기시설의 보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KOC의 평가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자문단의 사전 검증을 통해 국제스키연맹(FIS)맹의 인증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 경기장(확보 6, 보완 1)

- ① 스키점프 : 국제스키연맹 공인
- ② 여자활강 : 국제스키연맹 공인 - 결승지점 경사보강
- ③ 알파인대회전 : 국제스키연맹 공인 - 상부구역 폭 조정과 결승지점 경사조정
- ④ 알파인 회전 : 국제스키연맹 공인 - 결승점 경사조정 및 난이도 조정
- ⑤ 스노우보드 대회전 : 현시설 보강
- ⑥ 남자활강(보강)
 - 종 목 : 알파인 활강(남자)
 - 위 치 :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62번지(무주리조트 내)

<표 4> 경기시설 확보계획

경기장 별	올림픽기준	추진규모	추진구분			시설위치
			확보	보강	신설	
계		17개 경기장 .무주권 12 .전주권 5	6	2	9	
설상 계		12 경기장	5	1	6	
스키점프	K90, K120	K90, K120	○			리조트 내 현 위치 활용
여자활강 /슈퍼G	V=500m ~ 800m L= 2,700 ~ 3,100m B= 30m내외 / V=400m ~ 600m L=2,000 ~ 2,400m	V = 691m L = 3,050m B= 30m / V=500m L=2,200m	○			리조트 내 현 위치 활용
남자활강 /슈퍼G	V=800m ~ 1,100m L=3,000 ~ 3,500m B=30m 내외 / V=500m ~ 650m L=2,000 ~ 2,400m	V = 905m L = 3,280m B = 30m /V=610m L=2,200m		○		리조트 내 설천스키에어리어 여자활강장 옆 보강
알파인 대회전	남 V=300 ~ 450m 여 V=300 ~ 400m L=1,200m	V = 395m L = 1,441m	○			리조트 내 현 위치 활용
알파인 회전	남 V=180 ~ 220m 여 V=140 ~ 200m L=500 ~ 700m	V = 220m L = 783m	○			리조트 내 현위치 활용
스노우보드 대회전	V = 200 ~ 400m L = 1,200m B = 30m이상	V = 417m L = 1,425m B = 30 ~ 60m	○			리조트 내 플라밍고,실크로드 코스 활용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V = 3.0 ~ 4.5m L = 100 ~ 120m B = 13 ~ 18m 경사도 15°	V = 4.0m L = 110m B = 15m 경사도 15°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L = 1,000 ~ 1,500m B = 1.4 ~ 1.6m 평균경사 9%이상 커브 10 ~ 15개	L = 1,300m B = 1.4 ~ 1.6m 경사 9% 커브 14개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프리스타일 모글	L = 235±35m, B = 16 ~ 22m 종료지점 30 ~ 60m 경사도 28° ±4°	L = 300m B = 22m 경사도 28° ~ 32°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프리스타일 에어리얼	L = 115 ~ 120m B = 20 ~ 30m 평균경사 20 ~ 25°	L = 120m B = 25m 평균경사 25°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노르딕 크로스컨트리	V = 200m내 L = 16.7km내 B = 4 ~ 6m 오르막 1/3 : 9 ~ 18% 평지 1/3 : 표차 1 ~ 9m 내리막 1/3 : 능숙한 활강방법이 필요한정도	V = 200m L = 20km B = 6m(3코스) 내리막, 평지, 오르막 1/3씩 구성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바이애슬론	V = 100 ~ 200m L = 10km 이상 B = 5m 이상 해발 1,800m이하 고도 최대등판고도 75m	V = 200m, L = 15km B = 6m, 2코스 해발 1,800m이하 고도 최대등판고도 75m 사격거리 50m			○	무풍면 대덕산 지구에 신설

경기장 별	올림픽기준	추진규모	추진구분			시설위치
			확보	보강	신설	
빙상계(5)		5경기장	1	1	3	
쇼트트랙/피겨	61m×30m 관람석 7,000석	61m×30m 관람석 7,000석			○	전주에 신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트랙 L=400m 관람석 10,000석	더블 L=400m 관람석 13,000석			○	전주에 신설
컬링	L = 44.5m B = 4.75m 관람석 1,700석	L= 44.5m B= 4.75m 5면 관람석 2,600석	○			전주 현위치 활용
아이스하키(남)	L= 60m~61m B = 29~30m 관람석 10,000석	L = 61m B = 30m 관람석 12,000석			○	완주에 신설
아이스하키(여)	L= 60m~61m B = 29~30m 관람석 5,000석	L = 61m B = 30m 관람석 6,500석		○		익산 현위치 보강
빙상연습장						전주 현위치 보강

- 국제기준 : 표고차 800~1,100m 길이 3,000m ~3,500m
- 시설현황 : 표고차 805m 길이 3,050m
- 보완계획 : 표고차 905m 길이 3,280m

2) 무풍지구

무풍지구는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모글, 에어리얼, 스노우보드하프파이프,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를 위해 6개의 경기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신설경기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및 KOC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며, 국제 자문단의 사전 검증을 통해 국제경기연맹의 인증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 경기장 (신설 6)

- | | |
|--------------|----------------|
| ① 크로스컨트리 | ② 바이애슬론 |
| ③ 모글 | ④ 에어리얼 |
| ⑤ 스노우보드하프파이프 | ⑥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

3) 전주권

전주권의 경기시설은 빙상경기에 필요한 시설들이며, 필요한 경기시설은 컬링, 쏫트랙·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남), 아이스하키(여)경기장 등 5개 시설로, 이 가운데 컬링 경기장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아이스하키(여) 경기장은 보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3개 시설은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신설 및 보강 경기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및 KOC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국제자문단의 사전 검증을 통해 국제경기연맹의 인증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 경기장 (5개 : 확보 1, 보강 1, 신설 3)

- ① 컬링 : 확보
- ② 쏫트랙/피겨 : 신설
- ③ 스피드스케이팅 : 신설
- ④ 아이스하키(남) : 신설
- ⑤ 아이스하키(여) : 보강

다. 종합평가

전주·무주권의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의 확보는 기존시설의 활용 및 보완과 경기장 신규 건설로 해결이 가능하다. 최대의 난관으로 지적된 남자활강경기장의 경우 표고차 800~1,100m, 길이 3,000m ~3,500m의 국제기준에 대해 현재의 시설은 표고차 805m, 길이 3,050m로 이미 국제기준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러나 슬로프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보완하여 표고차 905m, 길이 3,280m의 규모가 된다면 국내외 어떤 경기장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무주권 설상경기의 연습시설 확보를 위해 무풍지구에 26면의 슬로프를 건설할 예정이며, 무주에서 40km 떨어진 함양군 서상면의 백운리조트에 스키장이 신규 건설될 예정이다. 함양군이 협조한다면 대회전, 스키보드, 하

프 파이프 등 동계올림픽 설상종목들의 보조 연습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모든 경기시설이 갖추고 난 후 IOC 산하 각 경기연맹의 국제공인을 받아두는 것은 내외부의 경기시설에 대한 지적을 잠재울 수 있으므로, 기존시설의 보완 및 신규 건설계획에 대해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공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3. 숙박시설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전라북도를 찾는 선수 및 임원, 관람객을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은 47,000여실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숙박수요에 대해 전주권과 무주권의 숙박시설은 총 82,000 여실을 확보하고 있어 36,000 여실의 여유 객실을 확보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레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신규호텔 및 숙박시설의 공급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의 사찰체험 및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및 민박 등을 활용할 경우 공급가능한 숙박시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5> 숙박시설 현황 및 계획

지역별	계	호텔	여관(특급)	여관	기숙사	기타숙소	선수촌		
소요	46,782	9,582	6,132	24,157	391	4,620	1,900(980)		
확보	82,807	9,602	6,132	55,014	4,028	6,131	1,900		
과부족	+36,025	+20	0	+30,857	+3,637	+1,511	-		
사 항	전 주 권	소요	16,261	1,005	6,132	5,113	391	3,120	500
		확보 (계획)	23,442 (1,230)	1,025 (380)	6,132	9,456	3,209 (350)	3,120	500 (500)
		과부족	+7,181	+20	0	4,343	+2,818	0	0
		소요	30,521	8,577	-	19,044	-	1,500	1,400(980)
무 주 권	확보 (계획)	59,365 (3,352)	8,577 (3,352)	-	45,558	819	3,011	1,400 (980)	
	과부족	+28,844	0	-	+26,514	+819	+1,511	-	

무주권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전, 대구 등 대도시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남 함양군의 다곡리조트 및 백운리조트 건설공사가 완료될 경우 숙박시설의 상당부분이 추가적으로 공급가능하다.

이러한 숙박시설은 2014년까지 계속해서 신규로 건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자료에 근거해서 예측한 객실의 수는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된 자료에 의해 올림픽 패밀러 및 관람객을 위한 숙소배정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4. 도로 및 교통

국제대회가 유치되어 개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원기반시설 비용이 막대하게 투자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 교통시설 등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동계올림픽 유치(개최)에 따른 Infra 확충 투자비용은 매우 절감될 것이다<표 6 참조>.

<표 6> 도로 및 고속도로·철도 현황과 확충계획

구분	노선수	항공	고속철	국철	고속도	4차선이상
계	24	3	3	3	7	8
기존 교통망	12	2	2	1	3	4
		군산공항 청주공항	경부고속철 (서울-대전) 호남선전철	호남선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	전주-군산간 전주-남원간 전주-부안간 전주-진안간
보수 확충	12	1	1	2	4	4
		김제공항	호남고속철	전라선복선전철 군산선복선전철	전주-광양간 전주-논산간 익산-장수간 무주-대구간	진안-무주간 무주-학산간 무주-적상간 안성-적상간
		2010년내 완공	2015년내 완공	2010년내 완공	2009년내 완공	2008년내 완공

현재 군산공항에 국내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김제공항이 2002년부터 부지매입이 시작되었고,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2010년 이내에 운항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각지에서 개최지역인 전주와 무주권으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는 호남고속도로, 88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군산-포항간 고속도로의 익산~장수 구간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내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철도망으로 호남선전철이 개통되어 운행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전라선 및 군산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0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전주·무주로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IV.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이 같은 메가이벤트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많은 지방 정부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메가이벤트를 유치하려고 경합을 벌인다. 전주·무주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전라북도를 국제적 동계스포츠 타운으로 건설하여 주변의 환경 친화적인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서남권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적극적인 해외 지역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낙후되어있는 인프라의 구축으로 전라북도의 성장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동계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첫째로 올림픽경기를 위한 시설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도로와 같은 인프라에 소요되는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올림픽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증설·보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경기장 시설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선수촌 건설, 보안, 수송 등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경제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동계올림픽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관과 기업들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경기 운용, 방송과 같은 올림픽 운영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올림픽 경기를 운용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투입되는 자본과 올림픽의 홍보와 중계와 같은 방송과 관련된 방송사, 기업들의 지출은 또 하나의 경제 효과의 근원이 된다.

셋째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의한 지출과 올림픽과 관련한 전북 지역 내의 투자 유입과 비즈니스 거래의 증대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겨난다.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과 올림픽 참가자들의 지출 그리고 지

역 내 비즈니스의 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계 올림픽도 하계 올림픽이나 다른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은 올림픽게임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중앙정부, 지방정부, 미디어 관계자들, 운동선수들과 코치들, 관람객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등이다.

올림픽을 위한 준비는 실제로 올림픽을 유치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된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서 올림픽을 마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올림픽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의 <표 7>로 요약이 된다.

<표 7> 올림픽 효과의 단계

년, n=올림픽개최	상 황
n-11	올림픽 유치신청-NOC 결정 - 올림픽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 그 후 유치를 위한 미비 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됨.
n-9	NOC 결정-IOC 결정 - 유치 신청한 도시가 올림픽의 규정에 부합 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유치신청서 작성. 올림픽에 필요한 시설 건설.
n-7	올림픽유치 확정
n	IOC 결정-올림픽경기 - 올림픽 경기 시설과 인프라의 건설 뿐 아니라 올림픽경기에 대한 준비 완료, 올림픽경기
n+	올림픽경기 이후 - 시설의 사후 이용과 올림픽경기로 인한 파급효과, 신 산업의 창출, 관광 효과 등을 분석

자료 : Preuss(2002)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 11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 올림픽개최 9년 전에 유치에 필요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올림픽개최 7년 전에 IOC가 개최지를 확정하게 된다. 7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림픽경기를 진행하고 그 후 올림픽으로 인한 효과 분석과 시설의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로 올림픽으로 인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따른 전라북도의 경제적, 재정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동계올림픽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를 구한다.

1. 경제 효과 분석도구

경제적 파급효과는 투자지출에 의한 유발효과와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그리고 올림픽경기조직위원회(OCOG)의 지출로 인한 파급효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투자지출은 동계올림픽을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장 시설이나 기타 인프라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는 올림픽경기에 참여 또는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는 선수와 방문객들의 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며 올림픽경기조직위원회(OCOG)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분석도구는 산업연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지역산업연관표(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산업을 26부분으로 분류하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그리고 9개 도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였다. 이 모형은 개방모형으로서 가계 부문이 외생부문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지역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지역 외의 상품을 지역내의 상품과 분리하는 비경쟁이입형 지역산업연관표의 형식을 취하여 이 모형에서의 투입, 최종수요, 수출수입 및 최종산출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AX + Y + E - M = X \quad (1)$$

여기서 A는 지역투입계수이고 X는 지역산출액, Y는 지역 최종수요, E는 지역수출, M은 지역수입을 나타낸다.

위 식을 정리하면

$$X = (I - A)^{-1}(Y + (E - M)) \quad (2)$$

여기에서는 델타 Y의 변화에 따른 (E-M)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과의 연관관계 보다는 전라북도 지역의 과급효과에 관심이 있으므로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의 전라북도의 기술계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과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지역간의 과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술계수 자체가 투입계수가 되며 이를 이용한 레온티에프의 역행렬을 구하여 각 산업에 대한 경제적 과급효과를 구하였다.

부가가치창출효과는 레온티에프의 역행렬계수에 부가가치 계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부가가치 벡터를 V, 부가가치 계수행렬을 A^v , 라 하면

$$V = A^v X \quad (3)$$

이므로 이 식을 생산유발관계식에 대입하면

$$X = A^v(I - A)^{-1}(Y + (E - M)) \quad (4)$$

을 얻게 되는데 $A^v(I - A)^{-1}$ 을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이라 한다. 이는 어떤 산업 부분의 지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 했을 때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고용유발효과는 전국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고용유발효과도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같이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을 레온티에프승수에 곱하여 얻을 수 있다. 즉, 고용유발효과는

$$l(I - A)^{-1}$$

여기서 l 은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이다.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다지역산업연관표에서 각 부문별 경제적 과급효과를 설명해 주는 기술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계수와 지역기술계수의 평균 수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계수를 전국계수와 직접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계수보다 작은 기술계수

가 278개 이고 전국계수보다 크게 나타난 항목이 398개 이다. 이중에서 전국계수와 지역계수의 차이가 10% 이상이 나는 것이 437개로 전체의 64.64% 이고 50%이상 차이 나는 것이 229개로 33.88%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국계수와 500% 이상 차이 나는 기술계수가 4개나 있었다. 이는 전국투입계수를 사용하여 전북 지역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경우 실제의 경제 파급 효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됨을 말한다.

<표 8> 전국 투입계수와 전북 지역기술계수의 격차 비교

단위 : 개, %

구 분	전 북
전국계수≥지역계수	278
전국계수<지역계수	398
10% 이상 차이	437(64.64)
50% 이상 차이	229(33.88)
100% 이상 차이	83(12.28)
500% 이상 차이	4(0.59)

출처 :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라북도 산업의 고용유발계수표는 현 시점에서는 구할 수 없어 전국 고용유발계수표를 이용하였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북의 총 부가가치 액을 100으로 놓고 각 산업의 부가가치 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정하여 부가가치 계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2. 투자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가. 투자지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기장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등에 대한 보수 내지 신설이 필요하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밴쿠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부가적

비용 중 90%를 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중 경우 9%정도만이 외부로부터 투자되고 나머지 91%는 민간이나 지방 정부에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투자가 상당히 적으므로 부가적인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4년 무주전주 동계올림픽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 이외의 주변 도로 시설의 보수 내지 확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2014년 무주전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기장과 그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다음과 같다.

<표 9> 올림픽경기장 확충계획과 재원조달

단위 : 억원

건설 주체별	경기장	계	공 공					민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 군비	기금		
전 주 시	쇼트랙, 피겨	260	260	78	84	85	13	-	-
	스피드스케이팅	600	600	180	195	195	30	-	-
	빙상 연습장	20	20	6	6	7	1	-	보강
익산시	아이스 하키(여)	30	30	9	10	10	1	-	보강
완주군	아이스하키(남)	417	417	125	136	136	20	-	-
	소 계	1,327	1,327	398	431	433	65	-	-
무 주 군	남자 활강	72	-	-	-	-	-	72	보강
	모글, 에어리얼, 하프 파이프	64	-	-	-	-	-	64	-
	루지/볼슬레이/스켈렉톤	220	-	-	-	-	-	220	-
	크로스컨트리	130	-	-	-	-	-	130	-
	바이애슬론	127	-	-	-	-	-	127	-
	스키 연습장	510	-	-	-	-	-	510	-
	소 계	1,123	-	-	-	-	-	1,123	-
	총 계	2,450	1,327	398	431	433	65	1,123	-

자료 : 동계올림픽 경기장 확충 계획, 내부

경기 시설을 위해 2,450억원이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지원 시설로서 선수촌, 기자촌, 숙박 시설의 신축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민

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무주전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투자되는 투자 지출은 5,950억 원이다.

나. 투자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전주와 익산시 그리고 완주군에 건설될 경기장 시설의 지출 내역을 보면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32.5%, 시·군비에서 32.6%, 기금에서 4.9%로 전라북도내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0%가 된다. 한편 무주에 투자되는 재원은 100% 민자에 의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를 제외한 투자액은 도내에서 조성된 것이므로 전라북도 내의 다른 프로젝트와 경쟁을 하게 된다. 순수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적 파급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도내에서 조성된 투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내에 투자가 되므로 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적 파급효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유치함으로써 인하여 순수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한다. <표 10>은 투자지출에 의한 전라북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투자 지출로 인해 가장 많은 파급효과를 받는 부분은 건설부문으로 6,043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고 목재·종이는 1,247억원, 비금속 광물은 1,193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장과 지원 시설의 신축 및 보수로 인한 건설부문과 그에 필요한 원재료 부문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투자로 인한 전체 파급효과는 13,434억원으로 예상된다.

투자지출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건설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나 2,73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계산되었고, 목재·종이는 565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6,0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생산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투자로 인한 건설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투자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유발효과 (명)
농림수산	244.80	110.92	15.95
광산	376.81	170.73	58.61
음식료	91.56	41.49	13.80
섬유·가죽	23.07	10.45	25.76
목재·종이	1,247.25	565.13	93.00
인쇄·출판및복제	7.05	3.19	42.01
석유·석탄	12.49	5.66	7.56
화학	898.54	407.13	145.36
비금속광물	1,192.83	540.47	384.25
제1차금속	494.39	224.01	159.10
금속	163.70	74.17	454.22
일반기계	88.88	40.27	174.57
전기전자기기	385.32	174.59	130.42
정밀기기	6.22	2.82	15.71
수송장비	54.98	24.91	12.20
가구및기타제조업	25.13	11.39	35.88
전력가스및수도	145.27	65.82	33.92
건설	6,042.52	2,737.87	7,165.94
도소매	222.56	100.84	420.19
음식점및숙박	-	-	116.92
운수및보관	137.72	62.40	136.49
통신및방송	132.67	60.11	36.47
금융및보험	353.57	160.20	333.2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44.02	337.11	385.50
공공행정	-	-	-
사회및기타서비스	342.14	155.02	70.77
Total	13,433.50	6,086.72	10,467.85

* 주 : 고용유발계수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 고용유발계수의 대각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제조업 보다는 1차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그 이유는 제조업은 최종재로서 생산하기 위해 많은 타 제조업의 중간 투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산업은 건설업으로 전체 유발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금속산업과 도소매사업이 각각 454명과 42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전체 투자로 인한 전체 고용 유발 효과는 10,468명 이다.

3.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올림픽을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기장 건설,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투자지출로 인한 파급효과와 방문객과 관광객의 지출, 그리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방문객과 관광객의 수요 추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동계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데이터의 관측 수가 적고 개최 도시의 특성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 방문객과 관광객으로 인한 동계올림픽의 효과

일반적으로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동계올림픽 개최 2년 전부터 방문객이 증가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동계올림픽 행사를 준비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라는 지명도의 증가에 따른 다른 국제 경기대회의 증가에 기인한다. 소위 “올림픽 효과”가 올림픽이 개최하기 이전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시드니와 솔트레이크 시의 경험과 벤쿠버의 예상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드니는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2000년 올림픽 게임의 여파로 1.74 백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2000년 올림픽기간 동안에만 403,000명의 외국 관광객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고 그 해 전체 외국 관광객 수는 4.9백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벤쿠버는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올림픽으로 인한 추가적인 관광객의 증가가 2.7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전 2년 개최 후 5년 동안은 “올림픽 효과”를 누린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적인 효과는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마케팅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속적인 투자가 “올림픽 효과”를 최대화 시킬 것이다

1) 방문자 수의 산정

전라북도의 관광객의 수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내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을 보면 증가하고는 있지만 1% 미만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외국인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을 볼 때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므로 무주전주 동계올림픽을 통한 전라북도 지역의 외국에 대한 홍보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은 전라북도의 관광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라북도의 관광객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월드컵의 개최로 인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전라북도 관광객의 추이

단위 : 명

년도 \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1997	19,938,440	19,879,827	58,613
1998	18,816,488	18,770,212	46,276
1999	20,977,433	20,884,381	93,052
2000	24,747,218	24,624,943	122,275
2001	27,838,975	27,673,999	164,976
2002	32,514,806	32,241,631	273,175

자료 : 전라북도 관광진흥과

<표 12> 전주시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내국인	외국인
2001	6,326,088	6,285,077	41,011
2002	7,189,049	7,036,413	152,618
2003	6,730,075	6,682,116	47,959

자료 : 전주시청 문화관광과

한편 전주시 방문객의 추세는 평균 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도의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6%의 성장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72%의 성장을 하였고 외국인의 추세는 12%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관광객의 추세보다 6%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전주가 국제 사회에 작으나마 홍보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규모는 다르더라도 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관광객은 올림픽을 참관하는 외국인과 올림픽 전후에 "올림픽 효과"로 인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으로 나눌 수 있다.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을 산정하는 데는 해외에 판매되는 입장권 수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드니의 경우 해외 판매 분이 13%, 스폰서와 방송인들이 8%, 그리고 IOC와 IF가 2%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주변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 시드니 올림픽 보다는 상당히 많은 해외 입장권 판매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팔리는 입장권의 비율을 30%로 가정하고 (2002 월드컵 대회 근거) 개폐회식을 제외하고 1인당 3개의 경기를 관람한다고 하면 올림픽기간 동안 순수하게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수는 118,848명이다.

한편 올림픽 이전과 이후의 해외 관광객 수를 추정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2002년은 월드컵이 열린 해 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추세를 파악할 경우 관

광객이 과대 계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추세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4년의 전라북도 해외 관광객 수는 530,135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시드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가 11% 증가한 것을 올림픽에 기인한다고 하였고 전주의 경우는 월드컵 후 순수한 관광객의 증가 추세보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추세가 6%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올림픽 개최 2년 전부터 올림픽개최 후 4년까지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7%를 올림픽 효과에 의한 방문객의 증가라고 하면 올림픽으로 인한 이 기간(6년) 동안의 총 외국 관광객은 273,192명이 될 것이다. 이중 전주와 무주를 찾는 관광객의 비율을 보수적으로 30%(2001년 전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의 비율 근거)라 산정을 하면 68,298명이 "올림픽 효과"로 인한 외국 관광객의 수이다.

내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참관하는 내국인과 올림픽 전후에 "올림픽 효과"로 인해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으로 나눌 수 있다. 올림픽을 입장권을 구입한 내국인의 수는 전체 입장권의 70%에서 1인당 평균 2경기를 관람한다고 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60%는 숙박 관광객이고 나머지 40%는 당일 관광객 이라고 가정할 경우 숙박 관광객은 249,581명이고 당일 관광객은 166,387명으로 추산한다. 이 비중을 근거로 2014년 올림픽을 참관하는 관광객들의 지출 총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구하였다. 하지만 올림픽경기 이후에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 중 올림픽 효과로 인한 관광객은 월드컵의 경우로 볼 때 국내 관광객의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컵 효과의 경우 관광객 전체의 추세선이 6%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국인의 증가 또한 6%정도 증가하여 1% 미만이 월드컵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가적인 올림픽 효과에 의한 국내 관광객의 파급효과는 계산하지 않고 올림픽을 참관하는 관광객의 지출로 인한 파급효과만을 추정하였다.

2) 방문자의 지출 규모와 지출 내역 산정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와 더불어 관광객의 지

출 내역을 파악한다. 지출 내역을 세분화 하여 산업별 그리고 소비 주체 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우 준비위원회는 가구와 설비에 28% 비즈니스 서비스에 25%를 지출해 두 산업에만 50%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방문객들은 운수, 교통에 15% 그리고 소매상에서의 제품 구입에 18%를 숙박과 음식에 각각 33%, 24%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여행과 비슷한 소비패턴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문객과 준비위원회의 비용 이외 지출 내역을 보면 총액에서는 도로 건설에 70%, 비즈니스 서비스에 20%를 사용을 하여 대부분 행사를 위한 인프라에 지출을 예상하였고 외부에서 기금의 유입을 나타내는 부가적 비용에 대한 지출은 90%이상이 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에 소비되고 설비투자에 10%를 할애하였다. 다음의 <표 13>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추산한 각 당사자들의 산업별 지출을 나타낸다.

<표 13>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지출 구분 산정

단위 : %

산 업	방문객	준비위원회 비용	준비위원회 외 비용	
			총액	부가적
의류산업(Miscellaneous)	0	1	0	0
가구, 설비	0	28	10	10
인쇄 출판	0	1	0	0
건설-주거용	0	2	0	0
건설-비주거용	0	9	0	0
건설-도로	0	5	70	90
운수 교통	15	3	0	0
통신	0	10	0	0
소매	18	0	0	0
재정	0	2	0	0
보험	0	2	0	0
숙박	33	1	0	0
음식	24	2	0	0
비즈니스 서비스	0	25	20	0
오락&레크리에이션 서비스	10	9	0	0

자료 : InterVISTAS Consulting Inc. (2002)

일본의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음 <표 14>와 같다. 상대적으로 벤쿠버 올림픽에 비해 교통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음식이 상대적으로 적게 차지하였다.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1인당 평균 32,116 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일본 나가노 올림픽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

단위 : 엔

구 분	평균 소비액	비 율
숙박비	8,668	0.270
기타 관광	439	0.014
교통비	9,268	0.289
토산물	6,257	0.195
음식	6,333	0.197
기타	1,152	0.036
총액	32,116	1.000

자료 : IOC www.Olympic.org

다음 <표 15>는 솔트레이크 올림픽과 시드니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과 일일당 평균지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 올림픽기간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과 체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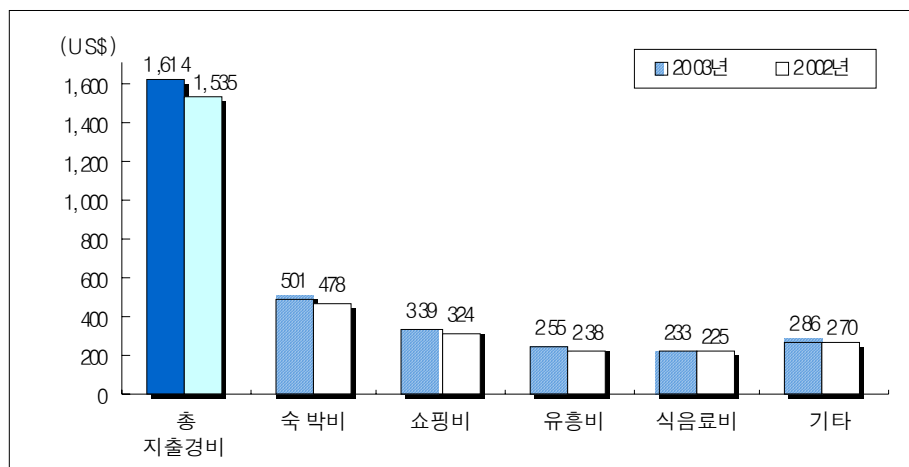
올림픽 이벤트	평균 지출/일	체류 기간
솔트레이크 시티	CDN\$440.26	7.7박
시드니	CDN\$69	19박

자료 : InterVISTA Consulting Inc. (2002)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시드니와 솔트레이크라는 지역적인 영향으로 평균 지출액과 체류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국의 지출액을 2014년 동계올림픽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국내평균지출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한국을 찾는 개별 여행을 하는 외국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 수는 7.2일로 솔트레이크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2014년 올림픽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평균 지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지출을 형태별로 알아보았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3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그림 1> 외국인 관광객의 형태별 지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총 지출 비용은 2001년에 1,416\$ 이었고 2002년에는 1,535\$, 그리고 2003년에는 1,61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2,709\$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여행객들의 평균적인 체류 기간이 7.2일로 솔트레이크 시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올림픽 기간 중 방문하는 방문객은 입장료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만을 지출을 할 것이고 이 비용은 OCOG의 입장권 수입으로 잡혀있으므로 여행객들의 비용에 산정하지 않았다. 올림픽 기간 동안의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의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고 환율은 1200원으로 계산하고 2004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경제파급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에서의 소비 패턴을 근거로 지출 내역에 대한 비중을 산정하였다. 그 비중은 다음의 <표 16>과 같으며 해에 따라 그 편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2014년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예상 지출액

단위 : US \$

지출 내역	비중	지출액*
숙박비	0.310	568
쇼핑비	0.210	384
유흥비	0.158	289
식음료비	0.145	264
기타	0.177	324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3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2004년 가격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 관광객은 숙박관광 여행시 1회 평균 123,280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일 관광 여행시에는 35,33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관광 여행 일수는 평균 2.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솔트레이크의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평균 7.7일이므로 총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지출비용에 2.76을 곱하였다. 한편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은 관광객의 수는 추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광객의 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국인 숙박 관광객이 249,581명이고 당일 관광객은 166,387명으로 추산 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는 동계올림픽에 참관하는 관광객이 118,848명이며 소위 "올림픽 효과"로 인한 관광객은 68,298명으로 나타났다.

나.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관광객의 지출로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

<표 17>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유발효과 (명)
농림수산	1,107.00	525.30	192.09
광산	90.62	29.83	5.17
음식료	1,616.50	772.22	289.55
섬유·가죽	40.58	11.70	44.40
목재·종이	371.65	150.04	49.98
인쇄·출판및복제	8.12	4.29	51.93
석유·석탄	9.08	3.81	7.47
화학	865.07	303.85	149.98
비금속광물	88.24	27.07	23.74
제1차금속	232.23	44.56	42.40
금속	30.12	7.45	63.68
일반기계	60.44	12.63	75.45
전기전자기기	216.43	53.75	49.67
정밀기기	11.52	3.01	17.69
수송장비	1,753.85	292.94	610.11
가구및기타제조업	26.66	8.58	43.65
전력가스및수도	125.54	53.54	43.55
건설	77.62	39.56	65.61
도소매	1,475.14	953.04	2,615.16
음식점및숙박	2,618.35	1,258.12	3,918.28
운수및보관	98.90	43.91	116.66
통신및방송	196.38	110.57	62.30
금융및보험	256.08	109.35	284.96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72.27	240.64	305.51
공공행정	-	-	-
사회및기타서비스	1,269.01	760.94	4,223.05
Total	13,117.40	5,820.71	13,352.05

* 주 : 고용유발계수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 고용유발계수의 대각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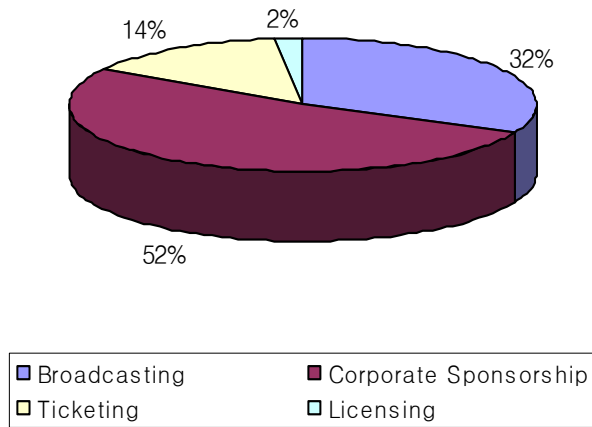
산업으로 2,618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지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수송장비 산업이 1,754억원, 기념품 및 도소매품의 판매 증가로 인한 도소매 산업이 1,475억원 그리고 음식료가 1,617억원의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총 파급효과는 13,117억원이다. 부가가치 창출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 음식점 및 숙박사업이 가장 큰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음식료 그리고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5,821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용유발효과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4,223명으로 가장 많고, 음식점 및 숙박이 3,918명 그리고 도소매에서 2,615명 등 총 13,35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4. OCOG의 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

OCOG는 올림픽의 유치와 진행을 총괄한다. OCOG는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고유의 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올림픽 행사와 운용에 지출을 하며 이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수입 내역

OCOG가 올림픽을 유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입원은 중계료와 휘장 사업이다. 중계료는 위원회가 TV중계를 중계권자에게 허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입이며 휘장 사업은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스폰서에게 일정한 권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이다. OCOG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이러한 올림픽 마케팅으로 충당을 한다. 2001에서 2004까지 올림픽 마케팅으로 인한 수입을 보면 중계료가 32%, 기업 스폰서들로부터 협찬이 52%, 입장권 수입은 14%, 그리고 라이선스로 인한 수입이 2%를 차지하였다<그림 2>.



<그림 2> 올림픽 마케팅 수입(2001-2004)

한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대회 규모나 시청자 수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의 기록을 바꿔 놓은 올림픽으로 기록이 되었고 이에 따른 마케팅 수입 또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며 시드니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얻는 마케팅 수입을 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시드니 올림픽 마케팅 수입

구분	수입원	금액(백만달러)	비율(%)
IOC 주관사업	TV 방영권 수입	1,331	51
	TOP프로그램	550	21
OCOG 주관사업	입장권 판매	356	14
	지역 스폰서십	315	12
	라이센싱및기타	66	3

자료 : Olympic Marketing Newsletter, IOC 2000. 9

1) TV 방영권 수입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TV 방영권 수입이 51%를 차지하여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TOP프로그램과 지역 스폰서십이 2: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였고 입장권

판매와 라이선싱 등은 타 올림픽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중계권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이로 인한 참가국, 참가자 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릴리함메르와 나가노 올림픽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표 19>는 릴리함메르 올림픽과 나가노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의 수를 국가별로 나타냈다.

<표 19> 세계 주요국의 시청자 수

단위 : 만명

국 가	릴리함메르(1994)	나가노(1998)	증감(%)
일본	759,8	1,780,3	134
캐나다	87,2	192,7	121
오스트레일리아	21,2	49,1	132
한국	122,6	574,6	368
남아프리카공화국	1,5	7,2	380
브라질	24,7	97,0	293
멕시코	21,1	95,5	352
미국	1,668,0	1,261,8	-24
스페인	16,2	19,9	23
프랑스	435,4	299,2	-31
노르웨이	66,2	49,3	-26
유로스포츠	60,0	205,7	243

자료 : IOC, Nagano Olympic Winter Games, Facts and Figures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는 나가노 올림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스피드 경기들 많이 시청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경기의 방영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20>을 보면 남미와 아프리카의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

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미와 남아메리카는 1994년 동계올림픽에서는 18시간과 29시간을 방영했지만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242시간과 276시간을 각각 방영했다. 이는 하계올림픽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두 대륙이 점점 동계올림픽에도 참가를 함으로써 자국 선수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 유럽 시장은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대륙별 동계올림픽 방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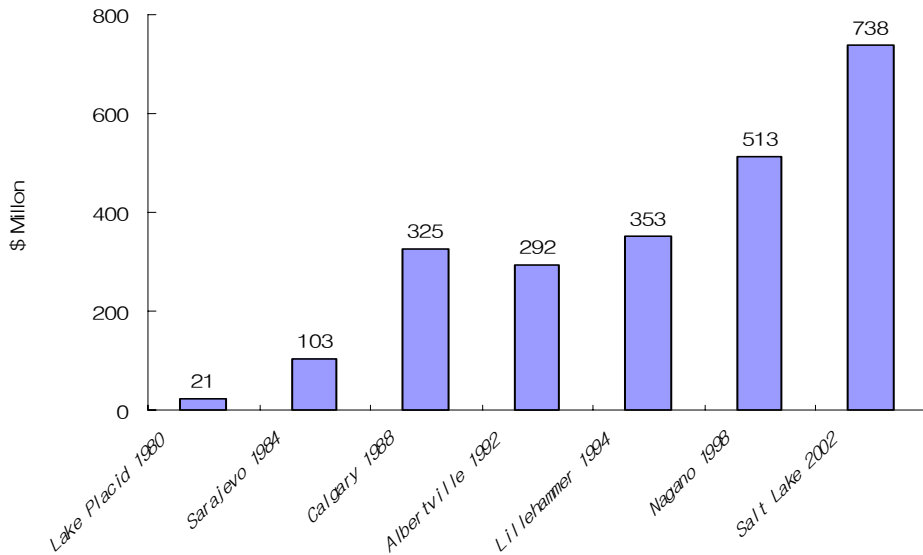
국가	릴리함메르(1994)	나가노(1998)	증감(%)
아시아-태평양	336	1,449	331
남아메리카	18	242	1,244
북아메리카	321	812	153
남아프리카	29	276	852
유럽	3,239	3,362	4
Total	3,943	6,141	55

자료 : IOC, Nagano Olympic Winter Games, Facts and Figures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올림픽 방영권으로 인한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년 릴리함메르 동계 올림픽에서는 4억\$, 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는 5.13억\$, 그리고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는 7.38억\$를 지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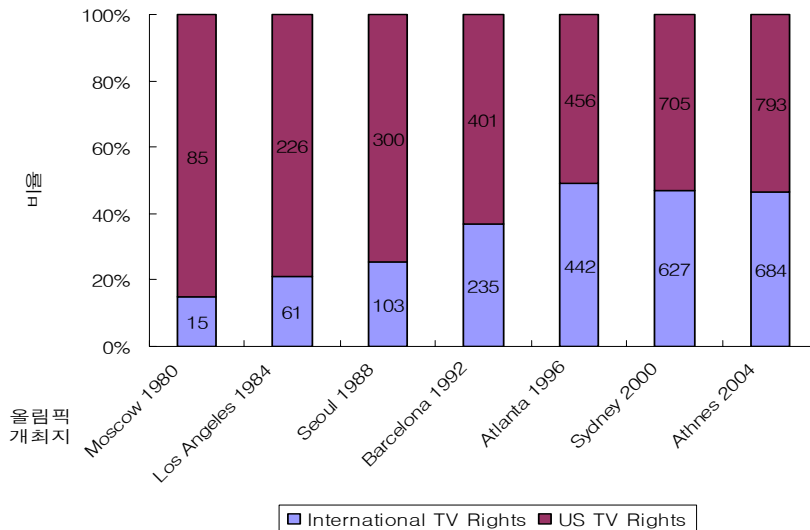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고 이에 따라 TV 중계 수입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시장의 협소성과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실수요자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경제권의 꾸준한 성장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스폰서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 속도와 국내 시장의 크기와 인지도를 고려하면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수준이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사용한 광고료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최국의 인구와 국민소득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7억 5천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수입 4,500억원 (49%: 조직위원회, 51%: IOC)).



자료 : IOC www.Olympic.org

<그림 3> 동계올림픽의 방영권 수입



자료 : IOC www.Olympic.org

<그림 4> 방영권비의 구성 추세

한편 하계올림픽 TV중계료의 구성비는 위 <그림 4>와 같다.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TV중계료가 미국으로부터의 TV중계료보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 아직도 미국의 비중이 크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광고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동계 올림픽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미국이 광고료를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회장사업

한편 TOP 프로그램은 1985년에 만들어져 올림픽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분야별로 11개 정도의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TO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그들로 인한 수입의 변화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TOP 프로그램 수입의 변화

단위 : 개, 만\$

구분	TOP I 1988 캘거리 1988 서울	TOP II 1992 알베르빌 1992 바르셀로나	TOP III 1994 릴리함메르 1996 애틀랜타	TOP IV 1998 나가노 2000 시드니
스폰서 기업 수	9	12	10	11
올림픽 참가 국수	159	169	197	200
스폰서십 총수입	9,500	17,500	35,000	55,000

자료 : 김종(2001)

회장 사업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약 3.13억\$이었고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6.96억\$이었다. 시드니 올림픽의 TOP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이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무주전주 올림픽에서는 전북의 지역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솔트레이크 올림픽 수준인 4,176억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22> 시드니올림픽 TOP프로그램 참여기업 (참여 연도순)

기업명	독점분야	올림픽 참여연도	TOP 참여연도
코닥	필름/사진이미지	1896	1988
코카콜라	청량음료	1928	1988
IBM	정보기술	1960	1994
제록스	문서인쇄처리공급	1964	1994
맥도날드	음식소매	1968	1998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타임	정기간행물/신문/잡지	1980	1988
비자	신용카드	1986	1988
파나소닉	오디오/TV/비디오장비	1988	1994
존행콧	생명보험/연금	1993	1994
UPS	우편/항공화물 운송서비스	1994	1996
삼성	무선통신장비	1998	1998

자료 : 김종(2001)

3) 입장료수입

입장료 수입은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120만장의 입장권을 판매하였으며 입장권의 평균 가격은 82\$ 이고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는 총160만장의 입장권이 판매되었고 평균 입장권 가격이 100\$이었다. 최근 동계올림픽에 입장한 입장객의 수를 보면 나가노 동계올림픽에는 128만명이 입장하였고 릴리함메르에는 123만명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아틀란타를 제외하고는 90%에 가까운 판매 실적을 보이므로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의 고조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지속적인 일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이에 대한 국내 수요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수적인 평가로 85% 정도의 입장권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한다.

<표 23> 올림픽 입장권 판매 실적

단위 : 억원

입장권 종류 \ 올림픽	릴리함메르 1994	나가노 1998	아틀란타 1998	시드니 2000
Opening ceremonies	26,568	48,937	68,047	92,677
Closing ceremonies	15,397	49,257	55,796	96,850
Total number of tickets sold(including ceremonies)	1,233,000	1,275,529	8,384,290	6,679,792
% of tickets sold	87.3 %	88%	82.3%	87.83%

자료 : IOC www.Olympic.org

다음 <표 24>는 종목별 예상 입장권 판매량을 나타낸다. 경기 종목이 인기 종목인지 비인기 종목인지에 따라 입장권의 판매량은 상이할 것이고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표 24> 종목별 예상 입장권 판매량

종 목	수용 능력	예상 판매	경기 수	총 입장권 판매
컬 링	3,500	3,400	9	30,600
아이스하키(남)	12,000	10,500	13	136,500
아이스하키(여)	6,500	6,000	13	78,000
피겨 및 쇼트랙	7,000	6,900	12	82,800
스피드 스케이팅	13,000	11,800	12	141,600
루 지	12,000	10,500	5	52,500
노르딕 복합	10,000	9,800	4	39,200
봅슬레이/스켈레톤	12,000	11,000	8	88,000
모글/에어리얼	13,000	10,360	8	82,880
바이애슬론	6,000	5,500	8	44,000
크로스컨트리	10,000	8,300	12	99,600
스노우보드	11,000	7,200	4	28,800
스키점프	23,000	20,000	3	60,000
알파인스키	15,000	14,000	16	224,000
총 판매수			127	1,188,480

* 개폐막식 좌석은 각각 45,200석이며 100% 판매될 것으로 예상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종목에 따른 입장권 판매 수를 예측하였다. 총 입장권은 1,188,480매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입장권 중 87.8%의 판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입장권의 가격은 경기마다 다르고 각 경기에도 좌석의 가격은 다르다. 2014년 무주전주 동계올림픽 입장권의 예상 가격을 다음 <표 25>에 요약하였다. 개폐막식에 입장권을 45,200매씩 판매하고 기본적으로 1급은 10%, 2급은 60%, 3급은 30%로 산정을 하였고 중요 경기의 비중은 7/20을 그 외 경기의 비중은 13/20을 두었다. 그 결과 평균 입장권의 가격은 54\$이고 이로 인한 입장권의 수입은 환율을 1200원으로 환산하여 842억원이 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25> 2014년 동계올림픽 입장권의 예상 가격

단위 : US\$

구 분	개폐회식	중요 경기	그 외 경기
1급	475	90 -130	40 -80
2급	200	60 - 90	25 - 40
3급	135	25 - 35	15- 25

*2004년 가격으로 환산함.

4) 기타 수입

무주전주 올림픽에서는 기념주화·복권 등의 판매로 942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40억원을 예상한다.

5) 수입총괄

이상에 살펴 본 2014년 전주·무주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업수입은 중계권료, 휘장사업, 입장료, 기념주화·복권, 기부금, 기타로 구분하여 총 10,500억 원의 수입을 예상한다<표 26>.

<표 26> 사업수입 총액

단위 : 억원

수입 내역	금 액	비율(%)
중계권료	4,500	42.9
휘장사업	4,176	39.8
입장료	842	8.0
기념주화·복권	942	9.0
기부금	20	0.2
기타	20	0.2
계	10,500	100.0

나. 지출 내역

이러한 수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올림픽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23%를 책정하고 경기 운영비로 14%를 지출하고 관리, 인건비 등으로 20%가 소요될 예정이고 전산 통신, 전자, 국제 영화 제작에 20%를 지출할 예정이다. 그 이외에 프레올림픽과 패럴림픽, 운송비, 광고 홍보 섭외비, 선수촌 운영비 등에 나머지 기금을 할애할 예정이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기간 중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는 일반적으로 올림픽경기 시작 5년 전부터 지출을 하게 된다. 운영비는 7,190억원으로 예상되고 세부 사항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행사비의 비중이 크고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전산 통신, 전자, 국제 영상 제작에 소요되는 비중이 크다.

다. OCOG의 소비지출에 대한 유발효과

<표 28>은 OCOG의 소비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를 나타낸다.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서 5,5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고, 통신 및 방송산업에서 2,826억원, 그리고 화학산업에서 1,228억원 등 모두 12,4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대회운영비 지출 내역

단위 : 억원

지출 내역	연관된 산업	금액	비율(%)
행사비	문화, 오락 서비스업	1,690	23.5
경기운영비	기타 서비스업	1,100	15.3
프레올림픽	문화, 오락 서비스업	370	5.1
페럴림픽	문화, 오락, 서비스업	130	1.8
운송비	운송업	150	2.1
광고, 홍보, 섭외비	광고업	750	10.4
선수촌 운영비	기타 서비스업	300	4.2
전산 통신, 전자, 국제영상 제작	통신 및 방송	1,400	19.5
관리, 인건비	기타 서비스업	1,300	18.1
계		7,190	100.0

부가가치도 같은 순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 전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8,00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고용 창출효과를 가장 많이 낸 산업은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3,74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산정 되었고 이는 전체 고용 창출효과인 6,880명의 54%에 해당한다.

5.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한 파급 효과를 3개로 구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수요의 주체에 따라서 투자지출, 관광객의 소비지출, 그리고 OCOG의 지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표 29>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총 효과를 통합적으로 나타낸다.

올림픽 경기로 인하여 가장 많은 생산효과를 얻는 산업은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으로 7,134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산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건설산업으로 6,252억원의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OCOG의 소비지출에 의한 산업별 유발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유발효과 (명)
농림수산	162.51	107.01	27.56
광산	76.91	49.94	3.32
음식료	112.67	74.27	32.92
섬유.가죽	24.25	15.83	32.53
목재.종이	242.60	158.01	41.42
인쇄.출판및복제	17.66	11.47	95.42
석유?석탄	11.70	7.37	6.44
화학	1,228.36	808.51	259.37
비금속광물	65.20	42.24	13.96
제1차금속	58.24	37.55	8.62
금속	13.27	8.58	24.38
일반기계	18.41	11.94	23.53
전기전자기기	206.44	130.71	46.48
정밀기기	10.61	6.94	23.44
수송장비	151.21	96.84	14.34
가구및기타제조업	24.30	15.90	34.31
전력가스및수도	154.36	100.14	38.51
건설	132.27	85.07	69.33
도소매	134.46	87.37	281.12
음식점및숙박	-	-	289.18
운수및보관	274.97	146.79	258.76
통신및방송	2,825.73	1,723.30	945.83
금융및보험	300.46	192.64	287.28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78.48	435.02	279.75
공공행정	-	-	-
사회및기타서비스	5,523.08	3,653.33	3,742.90
Total	12,448.13	8,006.77	6,880.69

* 주 : 고용유발계수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 고용유발계수의 대각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함

<표 29> 산업별 총 유발효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유발효과
농림수산	1,514.31	743.24	235.60
광산	544.33	250.49	67.10
음식료	1,820.73	887.97	336.28
섬유·가죽	87.90	37.98	102.69
목재·종이	1,861.50	873.17	184.39
인쇄·출판및복제	32.83	18.95	189.35
석유·석탄	33.27	16.84	21.46
화학	2,991.96	1,519.49	554.71
비금속광물	1,346.27	609.78	421.96
제1차금속	784.87	306.12	210.13
금속	207.09	90.21	542.28
일반기계	167.72	64.85	273.55
전기전자기기	808.19	359.06	226.58
정밀기기	28.35	12.77	56.83
수송장비	1,960.05	414.69	636.65
가구및기타제조업	76.09	35.87	113.83
전력가스및수도	425.17	219.50	115.97
건설	6,252.41	2,862.49	7,300.88
도소매	1,832.16	1,141.26	3,316.47
음식점및숙박	2,618.35	1,258.12	4,324.38
운수및보관	511.59	253.10	511.92
통신및방송	3,154.78	1,893.99	1,044.60
금융및보험	910.11	462.19	905.5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894.77	1,012.78	970.76
공공행정	-	-	-
사회및기타서비스	7,134.23	4,569.29	8,036.72
Total	38,999.03	19,914.20	30,700.60

* 주 : 고용유발계수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 고용유발계수의 대각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함

또한 올림픽의 주최로 인한 올림픽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사업서비스 분야와 경기장 및 주변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산업이 큰 생산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 광산 등 1차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59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38,99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부가가치 창출에서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4,569억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이 2,862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가가치는 19,914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에서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에서 8,037명으로 가장 큰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냈고, 건설업에서 7,301명, 음식점 및 숙박에서 4,324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고용창출효과는 30,701명으로 나타났다.

<표 29>를 단순화 하여 <표 30>에 표시하였다. 파급효과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5.28% 작고 제조업이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1%로 두 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30>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의 유발 효과

단위 : 억원, 명

산업별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	비중(%)	유발 효과	비중(%)	유발 효과	비중(%)
농림, 어업, 광업	2,058.64	5.28	993.73	4.99	302.70	0.99
제조업	12,206.83	31.30	5,247.75	26.35	3,870.71	12.61
전력, 가스, 수도, 건설	6,677.58	17.12	3,081.99	15.48	7,416.86	24.16
생산자 서비스	6,471.25	16.59	3,622.07	18.19	3,432.78	11.18
기타 서비스	11,584.73	29.71	6,968.67	34.99	15,677.56	51.07
합계	38,999.03	100	19,914.20	100	30,700.60	100

<표 29>과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유발효과는 생산에서 38,999억원, 부가가치에서 19,914억원, 그리고 고용에서 30,700명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위에서 자금의 사용처가 서로 경쟁을 하므로 위에 추산한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입장에서 순수한 동계올림픽 효과를 판별하려면 외부에서 투입되는 투자, 소비만을 고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추산일 것이다.

6.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올림픽은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림픽의 개최로 인한 산업의 연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스포츠산업

2014 동계올림픽의 국내 개최는 스포츠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4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된 경기시설은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인 편익을 준다. 경기시설은 지역민들의 여가 선용과 생활 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무주의 국제적인 지명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스포츠, 정치, 문화의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계올림픽 개최 전후에 우선적으로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경기시설을 이용하는 프로 스포츠 팀의 창단 가능성과 연습장으로서의 활용, 동계스포츠 대회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확대, 동계스포츠 발전기금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꿈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오락 또는 레저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수요측면에 있어서는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팬들의 수요확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동계스포츠 시장에서의 에이전트의 활동에 의한 마케팅 능력확대, 기업의 스폰서십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나. 전자·통신산업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전시장인 동시에 훈련장이기도 하다. 대회 개최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첨단 방송설비, 통신 장비가 투입되므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장비와 설비에 대한 Know-how 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으로 대회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은 차세대 통신 시설의 시험 장소가 되어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전라북도의 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이 디지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식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핵심 역량을 조성하는 첨단 기술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세계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수출 및 전세계 인터넷 허브의 영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위성방송 송수신기, 개인휴대용단말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 등의 각분야의 해외진출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 관광산업

올림픽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관광, 문화 이벤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국제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2014년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관광수입이라는 직접효과를 가져다 준다. 올림픽 개최로 인해 국가 및 지역이미지가 제고되어 중·장기적으로 해외관광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과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해외관광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4 동계올림픽의 국내 개최는 국제항공노선 및 해운노선의 확대와 함께 국내 교통여건,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통역 등과 같은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관련정보 및 개최지역의 관광정보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다양화 등 국내관광정보서비스의 확대와 마케팅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2014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동계스포츠 종목의 경기뿐만 아니라 개최지역의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분야와 지역문화가 결합된 종합문화예술의 축제다. 이로 인해 외국의 관광객들은 스포츠경기의 관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합문화예술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다. 이와 같은 외래관광객이 동계올림픽 기간 뿐만 아니라 올림픽 후에도 그 이벤트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전지역을 관광네트워크화하여 국제 관광지로서 기반 조성을 하여야 한다.

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로 인하여 문화·오락 서비스, 교육 및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다.

올림픽의 개최로 인한 이들 산업에서의 생산과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지만 부가가치창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며, 올림픽 개최 후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인근지역 파급효과

동계올림픽 개최는 단지 전라북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주변 자치단체에도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라북도와 인접한 충청남도는 전주·무주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하여 368억원의 생산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음식료업이 100억원의 생산과급효과를 얻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고용창출효과는 26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화학산업이 50명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경상남도의 경우 총생산과급효과는 433억원으로 예상되며 충청남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식료업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급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 총고용창출 효과는 327명으로 예상되며 그 중 음식료업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비금속광물업이 47명으로 음식료업과 비슷한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과급효과는 두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구·대전·충북·경북 등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의 경기시설 제공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활용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등을 통한 동계올림픽의 과급효과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의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적인 예로 경남 함양군에서 건설계획 중인 백운리조트의 스키시설은 설상종목의 연습장으로 활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1-2개 종목의 개최할 수도 있기에 직접적인 과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리조트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이용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내에서 소비지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무주 및 경남 함양지역에 대규모 동계스포츠 관련시설이 집적됨에 따라 중·남부권 동계스포츠 밸리로서 구축되고, 이로 인해 대전 이남의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동계스포츠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지역에 있어서도 관광·숙박시설 확보, 관광 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차후에 국제 사회에 지역이미지의 홍보효과를 갖게 되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청된다.

<표 31>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타지역(충남·경남)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경남		충남	
	생산파급	고용창출	생산파급	고용창출
농림수산	37.12	39.01	38.40	37.13
광산	3.07	7.43	4.54	7.13
음식료	113.81	48.84	100.35	43.36
섬유.가죽	1.44	4.61	0.96	3.65
목재.종이	38.86	33.68	39.46	33.62
인쇄,출판및복제	0.04	2.74	0.16	2.65
석유?석탄	0.02	0.79	0.99	0.78
화학	38.01	31.35	80.53	49.60
비금속광물	64.42	47.46	49.41	36.41
제1차금속	26.15	14.45	12.56	6.44
금속	28.25	34.86	7.16	12.02
일반기계	22.76	23.50	5.96	8.43
전기전자기기	25.26	14.62	17.98	9.76
정밀기기	2.87	3.74	1.14	1.66
수송장비	30.35	18.07	5.85	4.17
가구및기타제조업	0.85	2.19	2.64	3.61
전력가스및수도	-	-		-
건설	-	-		-
도소매	-	-		-
음식점및숙박	-	-		-
운수및보관	-	-		-
통신및방송	-	-		-
금융및보험	-	-		-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		-
공공행정	-	-		-
사회및기타서비스	-	-		-
Total	433.27	327.33	368.09	260.41

V.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1. 동계올림픽 개최의 긍정적 측면

최근에 들어서 동계올림픽과 같은 초대형 이벤트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그의 유치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초대형 이벤트가 가져다 주는 관광객의 유치 효과와 경제적인 소득의 증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주·무주에 유치함으로써 국민의 자신감 증대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제고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 개최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는 홍보로 인한 국제 사회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 효과는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서와 같은 국민 단합과 총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올림픽이 세계 최대의 스포츠, 관광, 문화 이벤트임을 감안할 때, 중국 및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으로 관광객의 증대로 우리나라가 국제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전라북도 각지역을 관광네트워크로 연계하여 국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벤트 후에도 그 이벤트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는 많을 것이다.

또한 전 올림픽에서 본 바와 같이 올림픽은 첨단 기술의 전시장인 동시에 훈련장이므로 한국의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지식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역량을 조성하는 첨단 기술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올림픽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이벤트 시설들과 그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그에 따른 인프라의 구축에 실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동계올림픽 개최 후에도 남아있을 것이므로 그 시설의 관리 운영 그 자체만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과 인프라의 구축은 그 지역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의 특수에 따른 고용의 증가와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경제 기회에 따른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올림픽을 전주·무주에 유치함으로써 참여 정부가 실행하는 지역균형개발 효과를 가진다. 그 이외에도 공공복지의 증가와 새로운 지역 사업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

2. 동계올림픽 개최의 부정적 측면

상기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이벤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벤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르는 인프라의 투자는 지역 또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혼잡 비용을 들 수 있다.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개최지뿐만 아니라 연관 지역까지도 혼잡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기존의 대회에서와 같이 동계올림픽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일회성 국제스포츠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도한 신규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벤트를 위해 건설된 시설의 사후 관리 문제가 전반적인 이벤트 추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벤트 추진을 위한 신규 시설의 꾸

준한 수요 창출이 되어야만 사후 문제가 대두되지 않지만 수요 창출에 실패하게 되면 시설의 사후 관리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기존의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에서의 재정적인 결과를 보면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비관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 올림픽을 개최한 많은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적자로 인해 절치부심한다는 사례를 접할 때, 전주·무주 동계올림픽이 과연 흑자대회로 남을 수 있는가는 전라북도와 무주전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3.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

동계 올림픽 경기 수행을 위한 소요 재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은 해당 세부 항목 산정 내역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표 32> 소요재원

단위 : 억원

수입	계	사업수입	국지방비	민자유치	기타
	16,450	10,500	1,327	4,623	-
지출	계	대회운영비	경기장시설비	지원시설비	예비비*
	16,450	7,190	2,450	3,500	3,310

* 예비비에 사후관리비 포함됨

수입 항목은 사업수입, 국·지방비, 그리고 민자유치로 구성이 된다. 사업수입은 중계권료와 휘장사업, 입장권 판매, 기념주화와 복권의 발행,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10,500억원을 확보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1,327억원을 지원 받고 4,623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총 16,4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출 항목은 대회 운영비, 경기장 시설비, 지원 시설비, 그리고 예비비가 있다. 올림픽경기를 위해 신설 또는 보강되는 경기장 시설비로 2,450억원, 선수

촌과 프레스센터 등 지원 시설비로 3,500억원, 대회 운영비로 7,190억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예비비(잉여금)로 3,310억 원을 할당할 계획이다.

대회운영비는 TV방영권, 휘장사업, 입장료 등의 OCOG의 사업 수익으로 자체 충당을 하고, 경기장 시설비는 국·지방비와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지원 시설비는 전액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4.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예산집행

한편 올림픽을 유치한 OCOG는 동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올림픽 개최 3년 전부터 휘장사업을 전개하며 개최 2년 전부터 입장권의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기념 주화를 발행하고 복권을 발행하여 올림픽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OCOG는 올림픽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게 되며 다음 <표 33>와 같은 일정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

올림픽의 개최로 인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올림픽 게임의 유치와 운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위원회는 TV중계료, 휘장사업, 입장권판매, 그리고 기념주화 및 복권판매 사업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다.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림픽 유치로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그 이외에 올림픽 게임의 운영으로 3,310억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는 신규 투자된 시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더불어 신규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올림픽의 흑자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설의 사후 관리 문제이다. 올림픽 이후에 사후 관리 부족으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기존 올림픽 개최지의 올림픽 개최로 인한 채산성을 나타내는 <표 34>에서 볼 수 있다.

<표 33> OCOG의 추정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년도	Game Year -7	Game Year -6	Game Year -5	Game Year -4	Game Year -3	Game Year -2	Game Year -1	Game Year	Game Year +1	Game Year +2
연초 현금상태	0	0	-60	-125	145	605	1,767	3,347	3,395	3,325
현금유입										
중계권료	-	-	60	450	260	420	810	2,500	-	-
회장사업	-	-	-	-	400	750	1,670	1,356	-	-
입장료수입	-	-	-	-	-	150	250	442	-	-
기념주화, 복권	-	-	-	-	-	192	350	400	-	-
기부금및기타	-	-	-	-	-	-	-	-	20	20
현금유입계	-	-	60	450	660	1512	3,080	4,698	20	20
현금유출										
대회운영비	-	60	125	180	200	350	1,500	4,650	90	35
현금유출계	0	60	125	180	200	350	1,500	4,650	90	35
연말현금상태	0	-60	-125	145	605	1,767	3,347	3,395	3,325	3,310

<표 34> 1990년대 올림픽대회의 개최 채산성

대회	개최지	유치비용	대회경비	결과
1992 하계	바르셀로나 (스페인)	1,000만\$	*조직위원회: 14억\$ *정부, 자치단체: 61억\$ *민간자본: 32억\$	*조직위: 300만\$ 흑자 *스페인정부: 부채40억\$ *자치단체: 부채 21억\$
1992 동계	알베르빌 (프랑스)	200만\$- 300만\$	*조직위원회: 8억\$ *정부, 자치단체: 12억\$	*조직위: 5,700만\$ 적자 (이중 75%는 프랑스 정부, 1200만\$는 자치 단체 부담. 조직위 부채 200만\$)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투자비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3,000-4,000만\$로 추정
1994 동계	릴리함메르 (노르웨이)	각 도시별 300만\$로 추정	*정부, 자치단체가 경비 10억5,000만\$, 기반시설비 5억3,300만\$ 부담	*4,000-5,000만\$ 흑자로 추정
1996 하계	애틀랜타 (미국)	700만\$	*민간자본: 17억\$	*현상 유지 대회로 평가되지만 조직위에서 구장 보수 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
1998 동계	나가노 (일본)	1,100만\$	*총 경비 130-140억\$ 중 조직위원회에서 8억2,000만\$ 부담	*조직위: 2,800만\$ 흑자 *일본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부채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110억\$로 추정

자료 : 김종(2001)

<표 3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흑자를 보는 경우는 1994년 릴리함메르 동계올림픽뿐이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흑자를 내었지만 스페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61억\$의 적자가 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나가노 올림픽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110억\$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올림픽 경기 후 사후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수요 창출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올림픽 사업의 수요 추정이나 재원 조달에 대한 비용 계산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5.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2014 동계올림픽은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건립한 8개 경기시설을 보수·보강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축 경기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지출은 경기시설 건설 및 보수에 2,450억원, 숙박 및 지원시설에 3,500억원 그리고 운영비에 7,19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반해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업수입액이 10,500억원이 예상되고, 민간자본 유치 4,623억원 그리고 국고 및 지방비 1,327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총 16,450억원의 수입이 기대된다.

올림픽게임 이후 경기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잉여금에 포함할 경우 3,310억원의 흑자가, 유지관리비를 잉여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2,810억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5>.

게다가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8,999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가 19,914억원, 고용창출효과가 30,701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2014 동계올림픽 개최에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정손익계산을

총괄해 볼 때, 2014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개최는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추정 손익계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사업수입	10,500	운 영 비	7,190
국고 및 지방비	1,327	경기장건설 및 보수	2,450
민간자본유치	4,623	숙박 및 지원시설	3,500
-	-	흑 자 분	3,310
합 계	16,450	합 계	16,450

VI.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

1.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절차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자 희망하는 도시는 자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대회 유치승인을 득해야 하며, 국가올림픽위원회는 한 개의 후보도시만을 승인하여야 한다(유치신청도시는 정부보증각서를 받아 IOC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국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최 후보도시는 재정보증서를 개최 후보도시, 광역단체, 범국가적 기관으로부터 받아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IOC회의 6개월 전까지 IOC에 유치신청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IOC 평가위원회는 유치 신청을 한 모든 개최후보도시의 시설을 조사하며, 개최도시 선정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2개월 전에 IOC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IOC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국제경기연맹 대표 2인
-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3명
- IOC위원 3인
- 선수위원회가 선정한 1인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 1인
- 특별자문위원 약간 명

IOC집행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서면보고에 기초하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후보도시 리스트를 정리하며, 유치신청도시는 IOC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IOC집행위원회는 IOC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공식후보도시를 선정한다.

IOC총회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회개최 7년 전에 개최도시를 선정한다.

2. 2014 동계올림픽 유치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동계올림픽 전주·무주 유치를 위해서는 대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전주·무주가 개최후보도시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IOC로부터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어야 한다.

KOC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후보지 승인 및 IOC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KOC 및 IOC 위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KOC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개최후보지 승인을 받기 위한 단기적인 유치전략 수립과 유치활동을 추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가. 단기 전략

전라북도는 KOC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후보지로 승인받기 위해 추진해야 할 단기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시설 조기 보완 및 국제인증 확보

전북의 2014 동계올림픽 개최역량을 인정받는 것은 개최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더구나 2002년 강원도지사가 동의서 작성시 단서 조항인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시설기준 충족”이라는 사항을 들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도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추고, 이들 시설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게 될 때 국내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활강경기장의 표고차와 난이도 확보를 위해 국제스키연맹의 코스전문가 및 기술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표고차 연장과 난이도를 조정하여 경기시설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국제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 개최지 홍보

전북이 2014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경쟁지역인 강원지역과 전북지역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전북의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전북지역 개최의 유리한 점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전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시설과 경기시설 확보에 따른 환경 파괴 최소화, 교통여건, 문화적 자원 등의 동계올림픽 개최 능력과 그리고 후자올림픽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북의 장점을 전국민이 인식하도록 한다.

홍보방법으로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직·간접적인 대중적 홍보와 함께 인터넷방송, 커뮤니티 및 전자메일을 활용한 직접적 홍보를 병행하도록 한다. TV의 경우 홍보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각종 드라마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무주, 전주를 활용토록 하여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촬영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더불어 인터넷 방송이나 커뮤니티의 경우 TV나 신문과 달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2014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자료로 영상물(비디오, CD), 안내팸플렛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교육·설명회시 활용토록 하고, 국내외 전북출신 인사들에게 홍보자료 및 서한문 등을 발송한다.

한편으로 전국민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 및 전북출신 인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유치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더불어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교육적 차원의 학생들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2014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전라북도를 동계 스포츠 경기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며, 겨울 스포츠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다.

3) 사회단체 및 대학생의 유치 활동 전개

전국 단위의 사회단체와 전북 도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2014동계올림픽의 전북유치를 위한 활동을 촉구하도록 한다.

전국 단위의 사회단체 핵심인사들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으로 영입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확산과 유치역량 결집에 치중하도록 한다. 전북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재경전북인단체에게도 협조를 구하여 유치활동의 임무를 부여토록 하며, 도내 사회단체들은 2014동계올림픽의 전북유치에 대한 당위성 및 유치성명서 발표, 유치분위기 확산 등의 활동과 함께 단체별로 타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전북도내 대학 총학생회 및 동아리협의회와 연계하여, 2014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국토순례 행사, 2014동계올림픽 유치 서포터스 조직, 타지역 대학생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4) 국내 자치단체간 지원협의체 구성

올림픽 개최에 있어 IOC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개최지 국민들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다. 개최 후보지역인 전주·무주는 물론이고 전북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동계올림픽 유치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전북 이외의 타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주와 1시간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대구·대전·충남·충북·경남·경북 지역은 관광, 숙박, 경기시설, 도로교통 등의 부문에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국제 지원네트워크 형성

전북에서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하여 세계스키점프대회,

세계 쇼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 ISU 세계 쇼트랙 월드컵대회 등의 굵직한 세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북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린 메달리스트와 임원 등은 전북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내 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은 국내 유치후보지 선정 뿐만 아니라 IOC 위원들에 대한 홍보 등 국제경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라북도유치위원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전북에 초청하여 옛감동과 정위를 느끼도록 하고 확실한 유대와 협조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경쟁지역에 비하여 상당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6) 동계스포츠 육성계획 수립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 및 동계스포츠 종목 신인선수의 발굴·육성 및 지원 등을 담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해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보완과 여건 조성, 또한 동계스포츠 종목의 신인선수 육성을 위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학교의 지정과 초·중·고 꿈나무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비 지원, 지도자 육성 및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나. 장기전략

KOC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후보지로 승인받고 IOC로부터 2014 동계올림픽 공식 개최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외교 인재 양성 및 현장실무형 외교시스템 구축

스포츠 외교는 특정 개인보다는 조직 중심의 현장실무형 외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바뀌어도 유효하고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스포츠 외교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선진체육 국가에 인력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동계스포츠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소년 동계스포츠 전용학습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현재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이므로 국내 및 세계 각국의 청소년 선수를 초청하여 동계대회 및 스포츠교실을 여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이들이 2014 동계올림픽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 동계스포츠대회 유치

2014동계올림픽의 개최지역 선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의 활발한 전북유치를 전개하고, 이러한 대회의 개최로 국제 동계스포츠 인사들의 전북방문 기회를 확대한다.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의 개최로 지역이미지 및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전북 및 국내 동계스포츠 저변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더불어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경기시설의 사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국제대회 개최를 계기로 활성화 될 스포츠교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참가국 상호간 체육체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체육을 통한 화해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시민참여의 활성화

2014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유치를 위하여 전북 도민들이 방관자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개최의지의 표명과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협조하는 선진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1동·면(洞·面) 1국 홍보운동 전개 : 전주와 무주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국 IOC 위원들에 대한 시민차원의 국제 홍보 시스템 전개
- 대학 1동아리 1국 교류 및 홍보시스템 구축 : 동계올림픽 참여선수의 대부분이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의 젊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차원의 각 동아리가 1국의 체육회와 교류하는 프로그램 개발
- 외국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 : 2014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유치를 위해 전주시와 무주군은 해외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및 주변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국제교류나 협력을 추진

3. 2014 동계올림픽 유치시 고려사항

1) 흑자대회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에 비해 참가선수가 적어 상업성이 약하므로 흑자대회를 치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흑자대회 여부는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개최지의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동계올림픽의 흑자대회를 위한 전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7년 동계 U대회시 건설한 기존 경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경기시설은 18개로 파악되고 있으나, 기존에 건설한 8개(알파인경기장 4개소, 노르딕경기장 1개소, 프리스타일경기장 1개소, 스노우보드경기장 2개소)시설은 개보수를 통하여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한 연습장 시설 등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수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재원을 효율적 확보를 위해 각종 부대시설은 민자 유치를 통해 건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과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회운영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촌과 각종 센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등의 각종 지원시설은 민자유치나 건물임차 등을 통하여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 경제성있는 흑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한다. 스포츠마케팅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효과가 미약하지만,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지식과 정보집약적인 산업이며,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는 북반구의 선진제국이 대부분인 만큼 민간기업의 차원에서는 효과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상품 판매시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무역박람회 파견, 해외구매단 유치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제고된 위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상품의 브랜드 및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대회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 및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의 참여

우선 전주와 무주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의욕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따른 많은 자원봉사자의 필요와 함께 상당수는 외국어 통역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자 등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의 어학능력이나 '97 U대회 참여정도, 2002 월드컵 대회 참여정

도, 참여일수, 참여강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풀(pool)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동계올림픽에서는 대회조직위원회와 민간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회 후에는 민간사회단체에 이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스포츠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강화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전주와 무주이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북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회 개최 해당 자치단체인 전주시와 무주군의 대회 유치를 위한 조직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며,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가, 부위원장을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맡게 될 때 유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대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기시설은 전주와 무주에 건립되지만, 숙박시설 및 각종 행사와 관광상품의 개발은 전북지역 내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전북지역의 특산품이나 우수기업 및 브랜드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또한 수많은 외국관광객이 내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리산·덕유산 관광권을 잇는 관광벨트와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대회의 유치와 효율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민·관·산·학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전 주민에게 열린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IOC의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시 유치국가의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주요한 평가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전주·무주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동참하고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2014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자들은 2014 동계올림픽의 전주·무주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식보고서」, 1997.9
- 금성근 외 2인, 「2002 아시안게임·월드컵 동시개최와 부산경제발전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31, 1996.7
- 김 중,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2010년 동계올림픽 흑자운영방안」, 2001
- 김종기, 「서울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 한국개발연구원, 1987. 9
- 김종기,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1989.3
- 김홍식 외 2인, 「Mega-Event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002년 월드컵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97-3, 경기개발연구원, 1997.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유치 타당성분석」, 2000
- 대구광역시, 「2001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 준비상황보고」, 1997.2
- 대구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1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구」, 1998.2
- 대한민국정부, 「서울아시아경기대회공식보고서」, 1997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요강」, 1989.12
- 영화컨설팅, 「19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무주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분석 보고서」, 1997.2
- 이춘근,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추정방법과 대구지역에의 적용」, 연구보고서 93-1,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4.2
- 전라북도,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백서」, 1997. 11
- 제2회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7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공식보고서」, 1997

- 최병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 이대로 가능한가?』 심포지엄 자료집, 2003. 4
- 최진우,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 민자유치방안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1998.2
-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5.6
-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의 국가발전적 의의와 경제적 파급효과, 1998.2
- 한국개발연구원, 「2002 FIFA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의의와 성과」, 2003.7
- 한국은행 전주지점, 「'97 동계 U대회가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996
- 한국은행, 「2000 산업연관표」, 2003
- Fuller, S. and R. Clinch, The Economic and Fiscal Impacts of Hosting the 2012 Olympic Games on the Washington-Baltimore Metropolitan Area, The Washington/Baltimore Regional 2012 Coalition, 2000
- InterVISTAS Consulting Inc.,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10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2002
- IOC, Nagano Olympic Winter Games, Facts and Figures
- Jang, J. et al.,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02 Korea-Japan World Cup,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9
- Kim Heungsik, The Economic Impact of the Sydney Olympics, 『경기연구』 제1호, 1996
-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Winter Universiade '97 Muju-Chonju, The Winter Universiade '97 Muju-Chonju Official Report, July 1997
-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X V III Olympic Winter Game, The X V III Olympic Winter Games Official Report, 1998